



Bae got
Youngdong
Church
since 2017.04.30

5

언어의 온도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언어에 온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상대를 쓰아붙이는 언어, 감정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는 언어, 이것은 너무 뜨거운 언어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언어, 상대의 마음을 꾀꾀 얼어붙게 하는 언어, 이것은 너무 차가운 언어입니다. 가장 적절한 언어의 온도는 몇 도가 되어야 할까요? 조선 시대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당시는 고기를 도축하고 파는 일을 하는 이들을 백정이라고 부르며 천대했습니다. 첫째 양반이 고기를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근만 쥐.' 두 번째 양반은 이렇게 말하며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고기 한근만 주게나.' 그 순간 고기를 받아 든 첫째 양반이 왜 자기 것이 작고 상대의 크냐고 따졌습니다. 그 때 백정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 고기는 백정이 잘랐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는 관우나 장비보다 힘이 세지도 못하고 싸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유비가 힘센 관우와 장비란 장수를 부하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비는 관우의 창이나 장비의 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는 36.5도의 따뜻한 언어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 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질병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몸도 힘든데,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 당했기 때문에 정신까지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조용히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 옷자락을 잡은 것을 아시고 그녀를 돌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딸아!" 이 말은 그녀가 1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랑이 담긴 존중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녀의 몸을 고쳤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한 마디는 그녀의 마음까지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적절한 온도는 36.5도입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는 몇도 쯤 될까요?



Bae got
Youngdong
Church
since 2017.04.30

6

교회안내

배곧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에서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에 개척한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소속의 건강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섬기는 이들

- 목사: 김종설 ·교육전도사: 김준영, 임현우
- 협동설교자: 이만순 장로
- 운영위원: 김은희 류제호 이영민 정누가 정상우
- 협력선교사: 주평강 주기쁨 바름 믿음(동북아프리카 E국 소말리족) 유종선 최영미 승주 세아(피지공화국)
- 돕는기관: 다세연(다음세대) 섬기는 사역단체

예배시간안내

Worship time & place

	주일예배	1부 09:30	배곧영동 숨	
		2부 11:00		
주 일	주일학교	11:00	배곧영동 숨	
	청소년부	13:20	배곧영동 숨	청소년 소그룹모임
	청년부	13:20	배곧영동 숨	청년 소그룹모임
	구역모임	13:20	배곧영동 숨	구역별모임
화	제자의 삶	10:30	배곧영동 숨	503호 소그룹실
수	제자의 삶	20:30	배곧영동 숨	503호 소그룹실
금	금요기도회	20:30	배곧영동 콤	
일	새벽기도회	06:00	배곧영동 콤	

차량운행 안내 문의: 사무실 (031-431-3928)

오시는 길

솔로몬프라자 5층

【버스】

11-A, 11-B, 11-C, 99-3



제2019-38호 통권126호
2019년 9월 22일

www.bgydc.net

주일예배

온새대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 1부 오전 09:30
| 2부 오전 11:00
| 배곧영동 숨

삶에서 예배로

	<1부 예배>	<2부 예배>
		경배와 찬양
*입례	입례송 / 기원 / 사도신경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 91장) 그 사랑 얼마나 (1부만)	
공동기도1	회개와 간구	
대표기도	서명석 집사	
공동기도2	다음세대와 자녀들을 위한 간구	

바울의 감사와 소망

설교 고린도전서 1:1-9 (신 262)
김종설 목사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봉헌	서명석 집사	정영혁 집사
*찬송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축도	설교자	

예배에서 삶으로

성도의교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소식

*표는 일어서시되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81-46 솔로몬프라자 5F
☎ 031-431-3928 H.P 010-7748-3928

담임목사: 김 종설
ma il.bgydc@gmail.com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배곧영동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습세례식

오늘 2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 학습: 김수현 안은숙 양지선 성도
- 세례: 오건영 학생

3. 어린이 예배안내

오늘부터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누어 예배드리게 됩니다.

- 초등부: 오전 11시, 5층 초등부실(김준영 전도사)
-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유치부실(임현우 전도사)

4. 양육과정 신청 안내

- 일시: 10월 1일부터 시작
- 개설과정: 제자의삶 2기(세퍼드라이프), 에베소서, 장년 홈빌더
- 예배실 앞면 우측에 부착된 신청서에 가능한 시간을 표기해 주세요

5. 주일교육안내

- 한가족교육: 점심식사 후, 소그룹실 1

6. 다음주일 예배 안내

9.29 주일 2부 예배는 온세대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7. 천로역정 영화상영

다음주일 점심식사 후 예배실에서 천로역정 영화상영이 있습니다.

8. 등록

이상구 집사, 김경순 집사, 서인 서울 서건 (인도: 김영아 집사, 한라2차)

9. 추천도서

「하나님의 뜻」 제럴드 L. 싯처 著 (성서유니온)



교회소개

배곧영동교회는 서울영동교회에서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섬김을 통한 세상의 변화'라는 서울영동교회의 건강한 가치와 정신을 이어받아 시흥배곧지역의 지역적 필요를 돕고 섬기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곧영동교회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신학자 한상동 목사를 배출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향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의 건강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예배위원			
날짜	예배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9.8	박계순 권사	이호영 성도	이만순 장로, 박정희 권사, 조대근 집사, 서명석 집사
9.15	김명호 집사	전서현 집사	
9.22	서명석 집사	정영혁 집사	
9.29	송아름 집사	정유리 집사	

교회일정	
9.22	학습세례식
9.29	온세대 주일

주중예배 안내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월 (임현우 전도사), 금 (김준영 전도사) 화-목 (김종설 목사)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30분)	9.27	김준영 전도사
	10.4	김종설 목사
	10.11	이만순 장로
	10.18	임현우 전도사
	10.25	김준영 전도사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01-0141-5873-91 서울영동교회 배곧영동교회
 ※ 교회 등록 관련으로 서울영동교회명이 앞에 나옵니다.
 ※ 이체시 입금자명과 헌금종류를 약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십일조, 홍길동감사 (6자까지 표기)

설교노트
 “바울의 감사와 소망”
 (고린도전서 1:1-9)

9월 전교인 암송구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